

전북 청림 함께 학교 운영

전북교육청, 청림문화 확산 위해... 유치중고 총 10곳 선정·6대 핵심 덕목 실천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청림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 청림 함께 학교'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0개교를 전북 청림 함께학교로 선정했다.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되는 전북 청림 함께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정·책임·약속·절제·정직·배려 등 6대 핵심 덕목을 중심으로 청림 문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된다.

미래세대인 학생 대상으로는 청림

인형극, 청림 나무 꾸미기, 청림 글짓기, 청림 캠페인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림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학부모 대상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사례 교육, 청렴 관련 공모전 및 부조리 개선 의견 수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교직원 대상으로는 청림 다짐 서약서 작성, 청렴 우수직원 선정, 청렴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청렴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사회 전체로 청

림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청림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미래형 청렴 올인원(ALL-in-One) 모델 실현을 추구하게 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청림 함께학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청렴한 태도와 실천력을 키워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청림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년 전북직업교육박람회' 개막식이 1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직업계고 우수성 널리... 학생들에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전북교육청, 오늘까지 군산서 '2025년 전북직업교육박람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19일 이틀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2025년 전북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학교 홍보관과 동아리 체험관 △개막식 △직업계고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학교 홍보관과 동아리 체험관에서는 도내 31개 직업계고의 입학 정보와 교육활동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학교별, 계열별 진학 상담을 통해 박람회장을 찾은 중학생들에게 화과 선택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진로 상담 부스, VR 체험

버스, 과학 체험 버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계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교육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이윤석 교수

금융영업인 대상 강연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이윤석 교수가 웰스 에듀(주)에서 금융영업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쳤다.

18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현재 더스타온해사장의 대표 손해사정사로도 활동해 왔다. 잘못된 보험상식 바로알기를 통해 실무자 역량 향상, 보험회사 신뢰도 제고 및 보험소비자와의 분쟁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강연의 핵심 키워드인 '고지의무'는 인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로 보험계약상 중요한 의무에 해당된다. 고지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통해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무조건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의무 팩트체크'를 통해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다.

이윤석 교수는 "보험회사 영업조직은 보험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1차 통로인 만큼 이들의 잘못된 설명은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보험 상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청년 창업 첫걸음 이끈다

남원서 '2025 First Start-up Thing' 개최

예비창업자 10명 대상 실전형 교육 운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6~17일 이틀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2025년 First Start-up Thing'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창업을 처음 준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 10명을 대상으로 창업 마인드 고취와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의 창업 유관기관들이 함께 해 성공 창업 전략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추진하는 'First Start-up Thing'은 첫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존감과 리더십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10개 창업기업을 선발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해 프로그램 운영 후 참여자 설문조사에 따라 후속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창업생태계 이해 및 회계·세무 기초와 성공 창업자 사례 특강, 사업자등록 및 제품 검증 전략,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박대희 센터장의 '재무 및 사업비 관리 강 의', 보부상컴퍼니 백두현 대표의 '성공 사례 특강', ㈜모모파트너즈 김경호 대표의 '제품 검증과 등록 전략', ㈜블레스미 이용진 대표의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실무 전문가들의 강의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또한 전북대 창업중심대학 선정자를 비롯해 원광대 재도전성공패키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패키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등 모두 97명의 창업자들이 함께해 창업자와 기관,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의 장도 마련됐다.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에는 생애최초 창업자 10명이 직접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향후 후속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데이터도 확보했다.

국경수 창업지원단장은 "막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생애 최초 예비창업자들이 용기를 갖고 실질적인 성공 창업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며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들이 창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평화·통일, 남북화해 정신 계승 다짐

21일 전주비전대 강당서 '제25회 전북 청소년 평화·통일한마당' 개최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 남상팔)이 오는 21일 전주비전대학교 강당에서 '제25회 전북 청소년 평화·통일한마당' 노래가사 바뀌 부르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1부 기념식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뜻깊은 올해, 한동안 침체기를 겪어야 했던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정신을 계승하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어진 제2부 평화·통일노래가사 바뀌부르기대회는 도내 초·중·고교와 학교밖 청소년기관(돌봄센터, 청소년센터)에서 초등 8팀, 중등 6팀 등 모두 14팀이 참가한다. 특히

초등학교 전 학년이 참가한 전주 YMCA 돌봄센터 연합팀(반월, 혁신, 전주)의 합창이 기대된다. 행사는 진안 부귀초등학교 합창단의 초청 합창 공연과 '고려K타이거즈 시범단' 어린이 20여 명의 '고려태권무' 시범 공연, '녹두꽃시민합창단(단장 이광철)' 단원들의 축하 무대도 준비됐다.

'전북청소년 평화·통일한마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2001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청소년들이 잘 아는 동요나 대중가요 가사를 평화·통일의 내용을 담은 가사로 바꿔 부르는 평화·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와 '북녘 동포에게 편지 쓰기' 부문으

로 열린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이번 대회는 경연 형식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축제여야 한다는 주최 측의 바람대로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며 "교사·학부모·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참가 어린이·청소년들은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현장은 K-팝, 록밴드, 동요, 댄스로 하나 된 평화·통일 한마당잔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063-905-0218/단체폰 010-2050-06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우리학교 원PICK! | 전북교육청, 전북학생 예능리더 선발대회 참가자 접수

도내 초등 5~6학년·중고교 재학생이라면 지원 가능

7~8월 전주·익산 등 권역별 예선... 본선은 10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 전북 학생예능리더 선발대회(우리학교 원PICK!)' 참가 신청을 받는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대회는 예술성·감수성·창의성이 뛰어난 학생 예능인재를 발굴하고, 오디션 문화를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건전한 자기표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참가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보

컬·댄스·랩·밴드·뮤지컬 등 다양한 예능 분야에서 끼와 열정을 지닌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예선은 전주(전주/완주)·익산(익산/군산)·김제(김제/정읍/남원/고창/부안/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은 전주권역은 7월 18일까지, 익산권역은 8월 8일까지, 김제권역은 8월 15일까지다.

지역별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 12팀을 선발하며, 지역별 예선대회 일정은 △7월 26일 전주권역 △8월 16일

익산권역 △8월 23일 김제권역이다.

본선대회는 10월 25일 오후 5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대회를 주관하는 JTV전주방송(www.jtv.co.kr)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참가 동영상과 함께 이메일(spring@jtv.co.kr)로 접수하면 된다.

강양원 문체예전과과장 "예능에 소질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학교 안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수의대 연구원들, 학술대회서 연구역량 입증

문선재·조운채 석사과정생, 배다운 박사 등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대회서 학술상

돼지 결핵 관리 필요성·흑염소 결핵 발생률·가성우역 모니터링 검사결과 등 제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이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47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요 학술상을 휩쓸며 연구역량을 입증했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 수의학과 문선재 석사과정생이 최우수 구두발표상을, 조운채 석사과정생이 최우수 포스터발표상을, 배다운 박사후연구원이 우수 포스터발표상을 각각 수상했다. 세 명 모두 조호성 교수 연구팀 소속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로 호평을 받았다.

문선재 석사과정생은 국내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결핵균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를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사람에게서 결핵이 증가하고, 동물에게서 결핵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들어 멧돼지와 돼지의 결핵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운채 석사과정생은 국내 재래 흑염소에서 결핵 발생률을 조사했다. 이



문선재 석사과정



조운채 석사과정



배다운 박사



조호성 교수

연구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에 대한 염소의 검사 필요성을 제시해 염소를 통한 결핵 확산 방지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배다운 박사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1종 가축 전염병인 가성우역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결과를 제시했다. 배 박사는 고라니와 재래염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혈청 및 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을 나타냈고, 아직 가성우역이 국내에서는 청정 상태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들을 지도한 조호성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최근 5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최다 인용된 논문 저자에게 수여되는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편, 'One Health, 수의사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 특강과 함께 16편의 현상연구 논문과 65편의 포스터가 발표됐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 전국 수의과대학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KOICA YP 4회 연속 선정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2025년 하반기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세서널(YP) 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네 차례 연속 YP 사업에 이름을 올리며, 총 5명의 청년 인재를 KOICA 사업 실무에 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YP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국내 우수 청년들이 ODA 및 개발협력 유관기관에 소속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1명의 청년을 선발해 국제개발협력 실무 및 해외 현장활동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그간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2023~2024년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ODA 및 개발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KOICA&해외봉사센터 김가현 센터장은 "YP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키우고, 점차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위기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19일 이틀간 전주 글로스터 호텔에서 '2025년 위기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의 권위자인 이주연 교수(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배은경 교수(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강사로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신병적 증상과 이해 △청소년 위기 개입 프로토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치료적 개입을 위한 사례 기반 컨설팅 △사실 위기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 및 심리안정화 기법 등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